

다시 ‘中企 대통령’ 선언 vs 경제단체 달래는 한국당

文 대통령-중소·벤처기업
한국당-경제단체 간담회

文, 200여명 靑 영빈관으로 초청
업계 성과·활동 공유, 노력 치하
한국당 “시장보수 가치 지킬 것”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중소·벤처기업인 20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고충을 청취하는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 없는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도 같은 시간에 주요 4대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와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간담회를 진행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인 20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

회는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면 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 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

계의 성과와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업계의 노력을 치하하기 위함”이라며 “우리 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인들을 향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달라고 당부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새해 경제 행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대 그룹 총수를 초청해 신년회를 진행했고,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지난 3일 서울 중구 소재 ‘메이커 스페이스(혁신 창업기업 현장)’ 및 서울 성동구 소재 ‘수제화 제작 현장’을 찾았다. 이달 중순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타운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를 계획하고도 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도 문 대통령 경제 행보에 힘을 실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인근 글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나라”라면서 “올해부터는 여러분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한국당 역시 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하는 일

시에 맞춰 4대 경제단체와 긴급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영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게 한국당 측 전언이다. 눈여겨볼 점은 한국당이 경제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 시기가 지난 2017년 5월 야당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이라는 것이다.

한편 여권과 야권이 동일동시 ‘경제 스킨십’ 행보를 선보이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그중 여권 경제 행보에 한국당이 본격적으로 견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게 야권 관계자 전언이다.

실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대 경제단체와의 긴급간담회 때 마무리 발언으로 “그동안 한국당이 ‘안보보수’에는 충실했으나 시장보수에는 충실하지 않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향후 한국당이 시장보수 가치를 지키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을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文 대통령 지지율 46.4%... 4주만에 반등

긍정평가 전주 대비 0.5%p 상승
부정평가 1.5%p 하락한 48.2%



문재인 대통령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모습. /리얼미터

하락세를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주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4일간 전국 성인 남녀 2008명을 대상으로 ‘1월 1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2%p·응답률 7.8%)’를 조사해 7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5%p 오른 46.4%다. 이러한 지지율은 4주만에 하락세에서 벗어난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1.5%p 하락한 48.2%, 무응답은 전주 대비 0.5%p 오른 5.4%로 각각 집계됐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기대’가 담긴 SNS 메시지 소식이 발생한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각각 48.1%(긍정평가)를 기록했다.

다만 문 대통령 지지율은 이른바 ‘신재민 논란’이 증폭됐던 지난 3일과 4일 각각 45.3%(긍정평가)를 기록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최근 ‘청와대의 KT & G 사장 인선 외압’ 및 ‘적자 국제 발행

강요’를 각각 폭로했고, 자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폭이 축소된 배경은 이 때문이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5%p 오른 38.3%를 기록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0.9%p 하락한 6.2%, 민주평화당은 전주 동일 2.4%를 각각 기록했다. /우승준 기자

실질수익률에 퇴직연금 가입자 움직임

금감원, 행태경제학 적용 연구결과

무관심한 퇴직연금 가입자를 움직이려면 실질수익률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품 운용 행태 개선을 위해 행태경제학을 적용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72조 1000 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덩치는 커졌지만 수익률은 부진하다. 지난 2017년 기준 운용 수익률은 연 1.88%에 불과하다.

특히 가입자의 상품 선택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거나 가입자의 90% 이상이 처음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국 께립을 통해 선정한 총 630명의 DC형 퇴직연금 실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교육을

했을 경우 ▲수익률 표준편차를 보여주는 경우 ▲실질 수익률을 보여주는 경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중위험·중수익 상품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경우를 적용해 실험을 했다.

퇴직연금 교육을 했을 때와 수익률 표준편차를 보여줄 때는 퇴직연금 상품 선택에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명목 수익률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수수료 비용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을 보여줄 경우 이전보다 고수익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또 자동으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에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구성된 상품을 넣을 경우 운용에 무관심해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연구결과를 반영해 1분기 중 도입될 ‘퇴직연금 상품 제안서 표준서식’에 상품별 실질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참고 지표로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또 고금리 상품 순으로 배열하고 총수수료액도 추가로 기재하기로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방탄복 잘못 입고 엉터리 응급처치”... 韓 군사영화의 오류

홍희범 월간 플래툰 편집장

“출연자 장비착용 실전과는 달라 군인 등에 잘못된 정보전달 우려”

지난해 12월 12일 개봉한 하정우 주연의 ‘PMC: 더 벙커’는 여느 한국영화보다 강렬한 충격권을 선보였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이 영화가 불편하다.

현실에서 해서는 안되는 치명적인 전술적 실수를 사실인양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포스터나 홍보영상에서 출연자들의 장비착용 모습은 실전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면서 “군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야 배우의 멋진 모습만 보겠지만,

군인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연인 하정우를 비롯해 출연자들은 ‘플레이트 케리어(방탄복)’을 하복부까지 내려서 착용하고 있다. 이러한 착용법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전술적인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킥을 맡은 배우 선욱 현씨가 폐에 총상을 입는 장면에서 미술적 효과와 상관 없는 치명적 오류를 보여준다.

킥의 가슴에는 상처의 구멍을 때워 기혈을 예방할 ‘체스트 쉴’이나 ‘비닐’을 이용한 ‘응급처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지혈용 스펀지 알갱이인 ‘XSTAT’를 이용해 지혈을 했다.

이 경우 XSTA의 스펀지 알갱이가

팽창해 내부장기를 압박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미군 야전교범 등에는 주요 장기가 위치한 신체부위에는 사용을 금하고 있다.

교전 장면에서는 목표지역을 확보한 주인공 일행이 기본적으로 행해야 하는 경계를 하지않고 상당 시간 체류하며 방심하는 모습도 보인다. 5년 간 준비하며 설계한 영화치고는 전투영화의 핵심인 고증이 부족한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홍 편집장은 “호평을 받는 해외 영화들의 경우 세심한 부분까지 고증에 신경을 쓰지만, 한국 영화는 고증 분야가 가볍게 다뤄지는 것 같다”면서 “한국 영화도 이제는 상당한 제작예산을 들이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을 잘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2023년 원양어업 생산량 목표 90만톤

해수부,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정부가 어류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원양어업 생산량을 오는 2023년까지 90만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속 가능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원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어선 안전, 어장 개척, 선원·복지, 산업구조, 국제협력 등 5개 분야, 16개 과제를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2023년까지 1천700억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해 노후어선 교체에 들어간다. 정부가 50%, 은행이 30~40% 출자하는 형식이다.

이를 통해 40년이 넘는 초고령 선박 17척을 2023년까지 새 어선으로 바꿔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연안국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직접 연안국과 어업협정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양영진 원양산업과장이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맺고 협상력을 높여 원양기업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또 국제 규제도 오징어 유자망 조업이 금지된 북서 태평양 지역을 오징어 채취기 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선원 복지를 위해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장기해상 근무원 중 간혹 휴식기 제도화 등도 추진한다. 해기사, 기관사 등 전문인력 확충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